

# 李白 文學의 思想性 研究\*

— 儒家思想을 中心으로 —

곽 이 부\*\*

— < 차례 > —

- I. 序 論
- II. 本 論
  - 1) 唐代와 儒家
  - 2) 孔子와 李白의 詩
  - 3) 李白의 民本의 發祥과 思考
  - 4) 李白의 愛民의 苦惱
- III. 結 論

## I. 序 論

李白은 唐代 “貞觀之治”와 “開元之治”로 정치적인 안정과 번영을 최고로 누린 唐詩의 代表的인 詩人이다. 李白의 人生觀과 創作方法, 重要作品의 思想性과 藝術性의 깊은 연구는 학술계의 意見이 一致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 李白의 다양한 사상편력과 인생역정으로 볼 때 소위 李白에 대한 “爭鳴”의 진행은 정상적인 자연 현상이라 하겠다.

李白의 詩에서 漢代를 썼지만 실은 唐代를, 經術을 논했지만 사실상 뜻은 諷諫에 있다. 詩人의 시대적 배경과 儒家思想의 간략한 역사적 흐름을 탐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儒家學說은 이미 紀元前 二世紀부터 있었으니, 中國文化의 構成部分으로 일찍이 자리를 차지했고, 建功立業, 事君榮親, 治國安邦, 兼善天下는 封建時代 知識分子의 最高 理想이었다. 儒家의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 이 논문은 1997년도 제주대학교 발전 기금 국외 파견 연구 지원 계획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의 정치 의식은 통치자의 제창과 봉건 사회 교육에 따라 오랜 봉건 사회에서 은연중에 感化, 침투되어 중국 민족의 영혼과 전통 심리가 되었다.<sup>1)</sup> 孔子와 儒家는 恒常 中國 文化 傳統의 徵表로 看做되어온 무시할 수 없는 中華文化이고 中國의 哲學思想이며 통치철학 이기도 하다.

儒家思想은 결코 不變의 개념이 아니고 또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모자도 아니다. 정치가, 사상가, 문학가의 머리 위에 씌여 놓고 분석도 없이 각자에게 모두 保守니 반동 매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 孔丘가 죽고 난 다음에 儒家는 巨大한 변화를 하게 되었다. 세상에 잘 알려진 학파는 儒家와 墨家이다. “孔子가 죽고 난 뒤에는 子張과의 유가, 子思과의 유가, 顏氏과의 유가 孟氏과의 유가 ···· 그러므로 孔子와 墨子 뒤에 유가는 여덟 파로 나뉘고 목가는 세 파로 되었다.”<sup>2)</sup>

封建 사회 漢代가 된 다음에 유가는 점점 지배 지위의 통치 사상이 된 것은 확실하다. 儒家는 君臣(君君, 臣臣, 父父, 子子)적인 상하의 복종관계를 잘 유지시킨 것이 주요 원인이다.<sup>3)</sup>

唐代는 中國 역사상 저명한 王朝로 世界적인 大國이었으며 특히 文化방면에서는 輝煌찬란했으니, 이것은 本來의 것을 계승 발전시켰고 外來文化를 잘 융합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唐代를 살다간 낭만주의 시인으로 알려진 李白은 ‘詩仙’, ‘謫仙’, ‘酒仙’, ‘劍仙’으로 일컬어 왔다. 李白은 26세에 出蜀하여 61세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고향에 가보지 못했고 放浪生活을 하다가 客死했다. 그의 一生이 光明正大함은 百姓이 영원히 그리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특히 李白의 豪放不羈는 世波에 많은 시련기를 맞았지만 壯志豪情은 一片丹心이었다. 그의 多難한 一生과 그 思想이 複雜多端하여 矛盾性和 統一性이 混在해 있어 判別하기가 쉽지 않다. 그의 思想에서 儒家學說의 積極成分과 消極的인 一面을 그의 濟世經綸적인 生애와 詩文을 통해 탐색함으로써 本體를 究明하는데 一助하고자 하는 것이다.

1) 葛景春 <李白思想藝術探屢> 中州古籍 出版社, 鄭州, 1991, p.19

2) <韓非子·顯學篇> “自孔子之死也, 有子張之儒, 有子思之儒, 有孟氏之儒, …… 故孔子之後, 儒分爲八, 墨離爲三.”

3) 王達津 <唐詩叢考> 上海 古籍 出版社, 1986년, p7~8

## II. 本 論

### 1) 唐代와 儒家

唐代의 儒家思想은 中國古代思想史의 중요한 발전시기이다. 이 시기는 佛家와 道家思想과 함께 상호충돌, 상호보완을 하는 “三教並存”의 시기로서, 각기 자기 사상을 부단히 조절하고 完備하여 눈부신 思想史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春秋戰國시대의 “百家爭鳴”과 漢代의 “獨尊儒術” 이후에 魏晉思想의 기초가 되기에 충분했고 國敎인 儒敎뿐만 아니라 모든 宗教活動이 성행했다.

한 인간의 사상은 時代와 生活에 큰 영향을 받는데, 그 시대의 최고 지도자의 文化와 思想이 正義인가 不義인가의 여부에 의해서 통치사회가 平和와 亂世인가를 구분한다.

魏晉南北朝와 짧은 隋代를 거치는 동안 封建社會에서 皇帝들은 百姓들로부터 환영받는 施政을 하게 되었다. 合理的인 정치는 盛況과 번영으로 이어졌고 非理의 정치는 반란과 난세의 역사를 기록했다.

唐代에는 儒·佛·道 三敎가 함께 유행되기는 하였지만 道敎와 佛敎는 皇帝의 施政方針에 따라 각기 浮沈을 거듭하였고, 비교적 안정적인 勢를 유지한 것은 儒敎였다. 佛敎는 西漢時期에 中國에 전입된 이후에 특히 唐代가 융성기이다. 佛經과 佛敎 理論이 수입됨에 따라 불교 사상은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문인과 士大夫의 정신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李氏의 唐 王朝은 道家의 創始者 李耳(老子)의 后代임을 영예롭게 여겨, 道敎의 지위가 비록 提高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佛敎와 비교해 보건대 儒敎의 地位는 佛敎 위에 있었다. 그리하여 武德8年(625) 唐 高祖는 國學에서 三敎의 先後를 정하는 詔書를 내렸는데, “老先·次孔·末釋”이라 하여 唐王朝의 사상적 통치를 正統化 시키는데 이용했다.

唐 太宗은 好學文治로 명성을 떨쳤고 長孫皇后는 儒學의 수호자로 모범을 보였고 《女則》 30권은 儒敎의 견지에서 쓴 것이다. 貞觀2年(628) 國學에 孔子廟堂을 세웠고, 孔子를 先聖으로 삼고 顏子를 先師로 삼았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바는 오로지 堯舜의 道와 周公과 孔子

二聖의 가르침에 있다”<sup>4)</sup>고 하여 仁과 德으로 나라를 다스린 堯와 舜 두 임금님을 理想의 君主로 숭배했다. 또한 中央直系官學으로 國子監의 통괄하는 官學制度를 보면, 六學으로 나누어지는데 儒學教育學館이니 國子學, 太學, 四門學이고 전문 교육학관은 律學, 書學, 算學이다. 文廟에서 孔子를 제사 지내는 典禮는 北齊이래로 행해져 내려왔는데, 唐 太宗 貞觀 四年(630)에는 全國의 州縣官學에 孔廟를 건립하게 하여 釋奠을 重視하는 정책을 썼으니 교육적인 의의 때문이다.<sup>5)</sup> 國子學을 위시한 교육기관에서의 교과목은 주요 이수 과목은 五經과 필수 과목은 《孝經》, 《論語》등 수기치인의 도리를 터득해 고급 및 중견 관리를 기르기 위해서였다. 太宗은 또 顏師古·孔穎達 등에게 五經을 정리, 《五經正義》를 지어 천하에 반포하도록 명하였으며, 科舉에 明經科를 두어 進士科와 같이 선발토록 하였다. 太宗 李世民은 “禮賢下士”했으니 治國에 유효해 국가가 조기에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나날이 경박한 세대가 개선되어 부강하게 되었다.

盛唐期の 玄宗의 儒家思想에 입각한 德治主義는 만 백성의 호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위 “雜胡” 지역의 이민족 백성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長安은 唐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잡호들로부터 동경의 대상이 되어서 四方에서 모여들었다. 고로 장안은 당시 역사적으로 가장 큰 국제도시가 되어 사상적으로 대립하는 面도 있었다. 자연히 春秋時代의 대체로 사상적인 기록인 〈諸子百家〉가 다시 부활된 듯 하여 가장 융성기를 맞았다. 황제는 종교와 사상면에서 자신의 기호와 취향에 따르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요구하는 바를 포용하는 절충적인 施政을 하기도 했다.

한편 道教를 信奉하던 玄宗 時에도 “國子科”가 개설되었고, 《孝經注》·《道德經注》·《金剛經注》을 저술하도록 해 천하에 반포케 하였다. 皇帝는 三教의 名人을 가끔 궁궐로 불러 그들과 談論했다. 孔子에 대한 호칭은 점점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唐代에는 ‘先師’, ‘先聖’이라 했고, 開元27年(739)에는 孔子를 ‘文宣王’으로, 顏回를 ‘兗國公’으로 奉崇했던 것이다.<sup>6)</sup> 玄宗 李隆基도 집권초기에는 온갖 백성과

4) 《貞觀政要》卷六：“己所好者，惟在堯舜之道，周孔之教。”

5) 吳富尹 《唐·新羅文化交流》 臺灣，東海大學碩士論文，1989, p14~27

6) 《舊唐書·玄宗下》：“(27年) 八月 甲申，制追贈孔宣父爲文宣王，顏回爲兗國公。”

“同心同德”으로 “開元之治”를 이뤄 내었을 때는 그의 통치철학에 萬衆一心이었다.

물론 道敎에 대한 崇奉도 만만치 않은 사회적 분위기였으나 수천년 동안 中國人의 意識 속에 깊이 자리잡아온 儒家의 思考構造와 비록 쇠퇴했을 망정, 당시 朝廷의 儒敎에 대한 重視는 李白에게 立身出世의 꿈을 키우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儒家思想은 봉건사회에 있어서 통치계급과 대다수 사대부의 전통적인 사상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

이러한 三宗의 정립은 文人의 의식구조나 사상에도 다양성을 지니게 해서 작품상의 활약은 대단했다. 이외에도 繪畵, 音樂, 書法, 舞蹈의 번영은 詩歌의 기교와 내용을 풍부, 광범위하게 하는 촉진작용을 했다.<sup>7)</sup>

强盛한 唐代에 百花齊放으로 특히 儒家가 如何히 부흥과 발전을 했으며 다른 사상과 조화를 이루며 전파되었는가? 文學界에 전파와 영향을 준 것도 지대하다 하겠지만 俗儒적인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특히 李白의 학습과정, 一生을 살아가며 儒家思想이 그의 詩作과 散文에 영향을 주고 소화했는지를 전면적으로 탐색하는 것도 儒家思想의 발전적 맥락에 유리한 一面이 있다고 하겠다.

## 2) 孔子와 李白의 詩

李白(701~762년)은 중국 文學思想 위대한 現實主義와 浪漫主義 詩人의 한 분이다. 그의 시는 인구에 회자되는 名篇이 많은데, 詩語의 대부분이 기세가 웅장, 성대하고 방종, 방자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盛唐의 百花齊放적인 제반 사상 인소를 흡입하고 三家九流의 융합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盲目的인 것은 결코 없으니 肯定과 否定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儒家의 創始者인 孔子에 대해서도 그러했다.

孔子(BC551~479)는 字가 仲尼이며 이름은 丘는인데 孔子의 父母가 尼丘의 神靈계 기원하며 得男하니 尼와 丘를 분리해 하나는 字로 다른 하나는 이름으로 삼았고 仲은 二男이기 때문이다.<sup>8)</sup> 그는 中國

7) 詹鍇 外三人 《唐宋詩詞常識》 上海古籍出版社, 1997, p.4참조

8) 大野實之助 《李太白詩歌全解》 東京, 早稻田大學出版社, p738

古代 教育者이며 儒敎 文化의 集大成者이다. 歷代思想家, 文學家들은 한 두 번 孔子의 形象을 形象化한 적이 있으며, 또한 孔子의 사상을 改造한 적이 있다. 비록 孔子의 진정한 형상과 사상을 식별해 내고 싶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비교적 확정적인 사실이 있다. 즉 첫째, 孔子는 儒家의 聖人이다. 둘째, 孔子의 道理는 中國 봉건 사회의 식형태의 기치이다. 셋째, 孔子가 정리한 六經은 中國 전통 문화의 결정체이다.

孔子가 태어난 시기는 春秋 末期이니 그 當時는 禮와 樂이 붕괴된 혼란한 국면이었다. 孔子는 이러한 국면을 마음 아파하며 전환시키고자 노력하여 드디어 西周式의 禮樂文化를 회복시켰다. 이를 위해 孔子는 夏·殷·周 三代 치적의 이상 사회를 불확실한 근거와 확실치 않은 정치상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려 재구성 저술했던 것이다.

이에 孔子는 儒家에서는 聖人으로 존송하고 있다. 소위 聖人이란 것은 理想的인 인격의 化身이다. 詩經에서도 聖人에 대해서 “슬기로운 사람들이란 먼 앞 일을 헤아리 신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sup>9)</sup> 詩經의 작자는 “聖人”을 “良心”의 뜻으로 “愚人”의 반대 개념으로 썼고 “聖人”은 神聖의 뜻은 결코 없었다. 孔子에 이르러서야 神格化 “聖人”으로 호칭이 시작되었다. 儒學은 儒敎化 되어 孔子는 儒敎의 神聖한 教主가 되었다.<sup>10)</sup>

李白은 一見, 유교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듯 하다. 李白은 세상사에 어둡고 迂闊하기만 한 魯의 유학자인양 하는 영감님을 조롱하는 詩를 썼다. “말채찍을 들어 앞길을 물었더니 문숫가의 영감장이 나를 비웃었다. 어리석은 주제에 장사를 깔보는구나 그런 자는 인생의 영고 성쇠를 논할 가치도 없다”<sup>11)</sup> 그는 비록 비웃음을 받는 몸일 망정 결코 좌절하지 않고 호매한 기상이 충만한 자신감을 매진하고 세속적인 것에는 극도로 멸시했다. 또 聖人으로 받드는 堯와 舜 임금에 대해서도 盲目的인 崇拜를 하지는 않았다.<sup>12)</sup> <廬山謠寄盧侍御虛舟>에서도 “나는 본래 楚나라 미치광이, 미친 노래 부르며 孔丘를

9) 《詩經·大雅·桑柔》“維此聖人，瞻言百里。”

10) 徐遠化 《儒學與東方文化》，人民出版社，1994，p.15~16

11) 李白<五月東魯行答汶山翁>“舉鞭訪前途，獲笑汶上翁。下愚忽壯士，未足論窮通。”

12) 李白<懷仙歌>：“堯舜之事不足驚”

비웃었다. 손에는 녹색 옥지팡이 들고 아침에 黃鶴樓를 하직했노라… 일생동안 名山에 찾아가 놀기를 좋아 했노라.”<sup>13)</sup>고도 하였다. 李白은 接輿가 공자 곁을 지나며 ‘鳳이여, 鳳이여, 어찌 德이 그리 쇠했는가?’<sup>14)</sup>라고 노래하며 孔子를 비웃은 일을 이끌어다 儒家에 대한 자신의 心境을 노래한 것이다. 이 글을 보면 마치 그는 世上의 名利에 아무런 私心이 없이 仙人이 되고 다니는 옥지팡이나 들고 世上에서 遊覽하려는 사람인 듯 보여지기 마련이다. 이 詩는 李白이 ‘永王事件에 連累되어 夜郎으로 유배가는 도중에 肅宗의 특사에 의해서 방면되었을 때 지은 것이다. 그는 정치적으로 진로가 막혀 곤란할 때는 廬山에 은거하여 격분한 심정을 읊었다.

#### <嘲魯儒>

魯나라 늙은이가 五經을 이야기 하는데  
백발로 죽을 때까지 章句에만 빠졌더라  
經國濟世의 秘策 여쭙 보니  
멍하니 안개 속에 빠진 듯 하더라  
발에는 먼길 가는 나그네의 신발 들메고  
머리에는 方山市을 곱게 썼어라  
느릿느릿 걸으며 正道를 간다 말하고  
길도 떠나기 전에 먼저부터 일어라  
원래 秦나라의 丞相府에서는  
선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었다  
자네는 결코 叔孫通이 아니니  
나와는 본디 부류가 다르네  
세상만사를 그렇게도 모르거든  
汶水 가에 가서 농삿일이나 하시게

魯叟談五經  
白髮死章句  
問以經濟策  
茫如墮烟霧  
足著遠游履  
首戴方山市  
緩步從直道  
未行先起塵  
秦家丞相府  
不重褒衣人  
君非叔孫通  
與我本殊倫  
時事且未達  
歸耕汶水濱

이 詩는 李白이 開元末年初에 東魯에 갔을 때 지은 작품이다. 당시 魯 지역에는 章句에만 죽도록 매달리는 자가 많았다. 백발이 되도록 經書만을 연구하는 儒生은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策略과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을 물으니 모두 실제와 거리가 멀어 모르더라. 李白은 맘속에 「經濟之才」와 「王霸大略」을 품고 있는 것으로서 自負

13) “我本楚狂人，鳳歌笑孔丘。手持綠玉杖，朝別黃鶴樓。……一生好入名山游”

14) 《莊子·人間世》：“鳳兮鳳兮，何如德之衰也？”

하였기에 魯 지역의 儒生에 대해서 헛 공부와 소용없는 책을 읽는 행위와 태도에 매우 불만족스러워 이 시를 지어 그들을 조롱했다.<sup>15)</sup> 그는 창의성의 결여를 우려했던 것이다.

魯(山東省)에는 漢代에 입던 소매가 넓고 긴 옷자락을 입도 네모나고 높은 모자를 쓴 者들이 많았는데 행동에는 불편했다. 李白이 이를 조롱하는 시를 지었던 것이다. 漢 高祖가 天下를 統一할 때는 側近의 참모였지만, 대부분 무리한들이었다. 高祖는 어떻게 해야 朝廷의 威儀를 세워 권위를 갖추고자 했다. 그 때 博士 叔孫通이 故鄉인 魯에 가서 儒者 30명을 모아 儀禮를 만들기로 하였다. 그런데 두 사람의 儒者가 부름에 쫓지 않고 叔孫通을 비난하니, 叔孫通이 말하기를 “너희들이야말로 腐儒로다. 時世의 變化를 모른다.(若莫鄙儒也, 不知時變) 《史記·叔孫通列傳》”고 하였다. 李白은 이 故事를 들어 형식만을 차리는 儒者를 비난한 것인데, 이를 통해 그가 時勢에 적응치 못하고 퇴보적인 유가사상을 매도했고 유교적 점진적인 정치 변혁의 활동과 현실주의를 추구하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嘲魯儒〉에서는 그런 時務에 어두운 儒學者 즉 俗儒·窮儒 혹은 小儒를 조소하는 것과 아울러 西漢 高祖代 朝廷의 禮樂大典을 제정한 叔孫通 등의 大儒·巨儒를 찬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李白은 그와 정반대되는 경향의 詩人 杜甫에 대해서도 그의 姿態를 비꼬고 있는 詩가 있으니 宋代의 計有功이 撰한 唐詩紀事 卷十八 李白條와 《四庫全書》集部 421(附太白戲子美)에 보인다.

〈戲贈杜甫〉

飯顆山 정상에서 杜甫를 만나보니  
머리에 삿갓 썼는데 정각 正午였네  
이별 후에 더 여위어버린 書生  
전과 같이 꼭 作詩에 苦心해서이겠지

飯顆山頭逢杜甫  
頭戴笠子日卓午  
借向別來太瘦生  
總爲從前作詩苦

이 詩는 詩題에서 보듯이 杜甫의 침울한 모습을 회롱하고 있다.<sup>16)</sup>

15) 唐綏 主編 《李白全集注彙釋集評》 天津, 百花文藝 出版社, 1996, p.3609

16) 大島實之助 《李太白詩歌全解》, 前掲書, p.1498



作詩상에서도 서로가 상반되었으니 李白은 自由奔放한 성격이어서 律詩는 적인데 杜甫는 세심한 성격으로 律詩가 많다. 杜甫는 對偶와 聲律 兩面에 努力하여 律詩에 뛰어났다.

社會進出面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 李白은 布衣에서 直上하여 卿相이 되는 “終南捷徑”의 길을 택해 科擧에는 한번도 응시치 않았는데 杜甫는 進士出身의 정식 官員이 되고자 順理대로 여러번 科擧에 응시했으나 모두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李白은 時事에 어두운 杜甫의 처신을 비웃었을 것이고 피차 야유와 농담할 수 있는 友情이 있었다.

<答王十二寒夜獨酌有懷>

유학에 몰두해 백발인 서생	白首爲儒
오히려 세상옛 비웃음 당하네	身被輕
한 마디 담소에 따라 체면 잃으니	一談一笑失顏色
쉬파리는 비단 옷을 단번에 구기지는 못하네	蒼蠅貝錦喧誇聲
孝子 曾參이 어찌 사람을 죽이라	曾參豈是殺人者
曾參의 모친 세 번 그말 듣고 불안해	才言三及慈母驚
임금께 충성해 굳은 악수를 한 그대	與君論心握君手
영욕이 그대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으랴	榮辱於余亦何有
孔子는 봉황과 기린을 잡았다는 말에 속상했네	孔聖猶聞傷鳳麟
.....	.....
그대 못 보았는가 李北海의 文才를	君不見北海
영웅 호걸의 호기로 지금은 사라져 없네	英風豪氣今何在
그대 못 보았는가 襄尚書의 권력을	君不見襄尚書
석자의 흙무덤을 황초로 뒤덮혀	土墳三尺蒿棘居
소년은 일찍이 五湖에 가기를 원했네	少年早欲五湖去
이를 보건데 高關대작과는 멀리하세	見此彌將鐘鼎疏

孔子的 門下生 중에서 孝道를 道德의 基本으로 삼은 曾參의 故事로 君臣 關係에서 참언은 진실을 호도해 허위로 만드는 사실을 李白은 간파했다. 또한 聖人 孔子의 鳳鳥와 기린의 상서로움을 해친다고하여 세상의 不正과 모순을 탄식하고 있다. 李白은 儒學을 修道하는 자를 白首·文儒·俗儒·窮儒·大儒·儒生으로 칭하여 불렀다.

나는 一生동안 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百代 흥은 영광을 얻고자 합니다.  
(一生欲報主, 百代期榮業) <贈張相鎬>

이 몸 죽어 後世에 不朽하기를 구하니, 영광스러운 이름 麒麟閣에  
걸려 있기만을 바라노라.  
(身沒期不朽, 榮名在麟閣) <擬古> 其七

저는 지금 세상을 구제하는 책략을 받치려 하나, 이 마음 누가 알아  
주리오? … 琅邪의 諸葛亮, 몸소 발갈았도다. 부귀는 내 스스로 얻고 공  
명을 성취해 봄철 樹木처럼 번성하리.

(欲獻濟時策, 此心誰見明? … 恥學琅邪人, 龍蟠事躬耕. 富貴吾自取, 建功  
及春榮) <鄴中贈王大勸人高鳳石門幽居>

入世보다 出世에 관심을 둔 李白은 現實參與에 왕성한 의욕을 보이  
고 있는 것이다. 또한 《長短經》에 영향받은 그의 입장이나 “安社稷,  
濟蒼生”의 理念으로 보건대 위의 詩에서의 표현은 그의 意識과는 전  
혀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는 道家의 始祖인 老  
자를 흠모하고 南華真人인 莊子의 자유분방한 世界를 탐닉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이거나 또는 政治理想을 마음껏 펼칠 수 없었  
던 것에 대한 보상심리였을 뿐, 其實 그의 眞意는 《長短經》類의 縱  
橫家의 態度를 견지하는 것이었고<sup>17)</sup> 보다 근본적으로는 儒家의 出세  
즉 立身立功의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長短經》은 《儒門經濟長短  
經》이라고도 칭하며 그 책의 사상체계는 儒家 위주의 雜家思想이  
다.<sup>18)</sup> 入世가 먼저이고 그런 연후에 出世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孔子를 大聖·聖人으로 추앙하였다. 즉, “仲尼는 大聖  
人이다. 中都에서 幸하시니 사망에서 분받았고”<sup>19)</sup>, “聖人 孔子는 鳳  
凰과 麒麟을 얻었다는 말에 傷心했도다”<sup>20)</sup>, 또 “그대 나의 재능을 어  
찌 魯의 仲尼와 같다 하는가? 大聖께서도 不遇하셨으니 작은 선비가  
어찌 슬퍼하리오?”<sup>21)</sup>라고 한 부분들에서 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엿볼

17) 拙稿 《李白과 趙葵의 長短經 一考》 : <中語中文學 第二十二輯> 韓國 中語中文學  
會, 1998, 6月

18) 葛景春, 前掲書, p.32

19) 李白<武昌韓君去思頌碑并書> : “仲尼, 大聖也, 幸中都而四方取則”

20) 李白<答王十二寒夜獨酌有懷> : “孔聖猶聞鳳凰, 董龍更是何鷄狗?”

21) 李白<書懷贈南陵常贊府> : “君看我才能, 何似魯仲尼? 大聖猶不遇, 小儒安足悲?”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은 小儒로 비유했다.

한편 孔子의 禮樂의 制定에 대해서도 그는 “媧皇補天”, “大禹治水”와 같은 大業績에 견주기도 하였다.

만약에 共工氏가 不周山을 부딪혀 넘어뜨리지 않고 女媧氏가 五色의 돌로 하늘을 떠 받치지 않았다면 天下는 洪水로 곳곳이 범람 했을 것이다. 만약 伯益과 大禹가 治山治水하지 않았다면 天下의 사람들은 모두 고기나 새우로 변했을 것이다. 만일 孔子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天下를 통치하는 道理는 정립할 수 없어 곧 혼란해졌을 것이다.

(共工不觸山, 媧皇不補天, 其鴻波汨汨流; 伯禹不治水, 萬人其魚乎? 禮樂大壞, 仲尼不作, 王道其昏乎?) <崇明寺佛頂尊勝陀羅尼幢頌并序>

李白은 《列子·湯問篇》을 인용해 혼돈의 세계와 伯益과 大禹의 治水 사업을 기렸다. 또한 孔子의 큰 공적에 비해 불우한 일생에 대해서도 자신의 처지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매우 동정하고 찬양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不遇한 신세를 自慰했던 것이고 같은 고초를 헤쳐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鞠歌行>

아름다움도 漢宮의 妃 王昭君은 닮지 말고	麗莫似漢宮妃
겸손함도 皇家의 딸을 닮지는 말지어다	謙莫似黃家女
.....	.....
성인 공자는 끝내 곤궁했다	泣麟老人終困厄
알아주지 않는 夜光珠의 恨 진실로 슬퍼하노라	夜光抱恨良嘆悲
세월도 흘러만 가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日月逝矣吾何之

인생은 美人의 얼굴이나 皇女의 도덕과도 같은 것이며, 설령 그 몸에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도 그것으로 몸이 안전하게 되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성인과 같은 덕을 많이 갖추고 있어도 그것으로써 天道에 따라 一身이 행복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魯나라의 역사 《春秋》를 저술하여 확립으로써 붓을 놓은 성인 孔子가 도리어 최후는 곤란에 빠져 버렸다.

야광의 구슬도 그것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으면 만사가 헛되게

끝나 버리게 마련이지만, 역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알아 주지 않는 불운을 李白은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懷才不遇의 세월은 흘러가고, 李白은 막막한 심정으로 고난의 가시밭 길을 가야만 했던 것이다.

그 때의 天命이 크기도 했지만, 孔子 같은 성인도 어쩔 수 없었네.  
…時命或大謬, 仲尼將奈何… <紀南陵題五松山>

宋나라 사람 王을 돌로 여겼고 魯나라 孔子를 몰라 봐 東家の 丘라고 친하게 불렀네.  
…宋人不辨玉, 魯賤東家丘… <送薛九被讒去魯>

楚의 卞和氏가 璞玉을 헌상했으나 돌로 여겼고 孔子님도 생전에는 才能을 인정받지 못했네.  
…荆人泣美玉, 魯叟悲瓠瓜… <早秋贈十七仲堪>

孔子는 70세까지 유세 했으나 수용하는 國王들 없었네. 齊나라 魯仲連千舍과 작위로 안 받고 해변에 숨었네.  
…仲尼七十說, 歷聘莫見收. 魯連逃千金, 珪組豈可酬… <贈崔郎中宗之>

李白은 또 孔子를 人才를 識別하고 後進을 잘 이끄는 스승 및 知己로 여기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孔子를 자기 학습의 모범으로 삼고 자신을 孔子에게 비유하기도 하였다.

큰 봉새 나니 천직 온통 진동해 힘 빠져 날개 죽지 증천에서 꺾였네.  
뒷날 사람들 이를 전하겠지만 孔子님 안 계시니 눈물 흘릴자 뉘일꼬?  
大鵬飛兮振八裔, 中天摧兮力不濟… 后人得之傳此, 仲尼亡兮誰爲出涕  
<臨路歌>

聖人の 道理가 충만한 사회에서는 재능있는 자가 적재적소에서 날개를 마음껏 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장되어 버리는 사회를 통탄했다. 孔子는 不朽의 名作 《春秋》를 지어 올바른 歷史觀을 후세에 남겼다. 李白은 政治的으로는 좌절했지만 그의 文學은 《春秋》와 並稱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孔子님만이 李白의 眞面目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

이 문장 결코 상실치 않을 것이고 東岳의 태산처럼 우뚝하리. 公治長의 죄는 죄도 아니고 孔子님도 의심 받았었네.

…斯文未喪, 東岳豈. …治長非罪, 尼父無猶猜… <上崔相百憂章>

大雅의 정치시 이미 시들었고 나도 노쇠하면 뉘 일으키리 내 뜻은 시의 기풍을 바로 잡아 仲尼王 孔子의 字이며 이름은 丘인데 孔子의 父母가 尼丘의 神에게 기원하며 得男하니 분리해 하나는 字로 다른 하나는 이름으로 삼았고 仲은 二男이기 때문이다.<sup>22)</sup>

…大雅久不作, 吾衰竟誰陳…

我志在刪述, 垂耀映千春. 希聖如有立, 絕筆于獲麟. <古風>其一

한편, 李白의 孔子에 대한 이러한 尊崇은 一貫性을 갖는다. 즉, 出蜀 이전 <上李邕>을 쓴 초기에서 臨終 直前に 지은 <臨路歌>에 이르기까지 그의 孔子에 대한 갈등과 尊崇은 恒常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孔子의 爲人됨, 處境, 그리고 그의 업적에 대해 무한한 敬意와 깊은 同情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孔子 個人에 대한 情感과 態度問題가 아니라, 儒家의 積極的인 用世의 思想과 人生觀이 李白의 思想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까닭이라고 하겠다. 李白은 孔子에 대해 부정적인 일면 즉 소극적인 사상에 대해서는 매도와 회의를 느껴 조소하는 시를 쓰기도 했다. 孔子는 君主를 보필하는 명재상이 되어서 封建制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였지만 한계를 느껴 저술 활동과 教育者로서 백성을 계몽하려고 하였다. 故로 李白은 孔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양상을 띄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시를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 했다고 하겠다. 또한 李白도 一生을 두고 추구해온 정치적 포부는 접어두고 孔子처럼 저술에 힘써 千秋에 길이 빛나는 詩人으로 선회했다.

### 3) 李白의 民本的發祥과 思考

儒敎의 民本思想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李白의 詩歌를 통해 孔子의 人間 社會의 신뢰를 중심으로한 單面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22) 大野實之助 <李太白詩歌全解>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p.738

孔子는 정치에 대하여 최우선 목표는 신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足食足兵，民信之矣…自古皆有死，民無信，不立。《論語·顏淵》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軍備를 充足하게 하며 백성이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다. … 예로부터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 죽기 마련이니,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

이처럼 孔子는 “信”을 가장 중시했고, 인간 사회의 신뢰 관계의 회복을 열망하여 윤리 질서의 확립을 근본 과제로 삼았다.<sup>23)</sup> 세 가지 기본 정책, 즉 經濟, 經濟, 軍事, 治安 政策인데, ‘食’은 국민의 衣食住이니 국민생활의 필수 조건이다. ‘兵’은 軍事화 國防이니 安定한 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는 非正義의 전쟁 즉 침략적인 야욕이 아니라 正義의 전쟁이다. ‘信’은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신망이니, 民心이 爲政者에게서 遊離되면 올바른 정치가 못 이루어지니 정치의 가장 기본 조건이다. 국민의 지지가 없는 국가는 砂上樓閣과 같아 언제 멸망할지도 모른다.

<子夜吳歌>其三

長安 하늘은 허허 달빛만이 퍼지고  
은 거리 집집엔 밤새 다리미 소리  
소슬한 가을 바람 불어 멈추지 않으니  
미 모두 玉門關 그리는 대타는 女心  
어느 날에 북쪽 오랑캐 다 무찌르고  
그리운 님 싸움터에서 돌아오리!

長安 一片月  
萬戶擣衣聲  
秋風吹不盡  
總是玉關情  
何日平胡虜  
良人罷遠征

李白은 東晉時代(AD 4세기경)의 名歌手인 子夜라는 女性이 지은 애절한 연애시 子夜歌라고 하는데 이 樂府題를 가지고 새로운 내용의 반체제적인 反戰詩를 지었다. 甘肅省 敦煌縣 서쪽의 玉門關에 님이 출정할 때는 더운 여름이었지만 지금은 寒氣를 느끼는 계절이 님의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님께 보내는 사모의 감정이다. 원정나간 님을 애타게 그리는 女心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非正義의 전쟁에 대한 전면

적인 반항의 선봉자가 되었다. 李白의 <越女詞 三首>와 유사하다.

李白의 一生의 念願은 功成身退하여 자신의 본래 위치로 돌아오게 하였으니, 곧 안온한 社會에서 위대한 詩人으로 남고자 했던 것이다. 그의 人生 旅程이 여의치 않았고 또한 스스로 모순된 입장을 지녔으니, 이는 당시 유행하였던 風潮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그는 戰國末 楚의 屈原이 <漁父辭>를 읊조리며 자포자기한 것을 아쉬워하며 다음과 같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笑歌行>

자넌 못 들었는가  
창랑의 노인 노래 소리를  
또한 창랑의 물에 내 발을 씻겠다는 말을  
평생토록 자신의 몸을 도모할 줄 모르고  
공연히 이소를 지어 후인더러 읽게 하나

君不見  
滄浪老人一曲  
還道滄浪濯吾足  
平生不解謀此身  
虛作離騷遺人讀

李白은 옳지 못한 사회에서도 正道를 걷고 있으면 死後에 是非가 판단되어 명성은 남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의 主眼點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匡正하려는 노력으로 一貫하고 있어서, 屈原의 <離騷>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울러 屈原의 시련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했음을 탓하고 자신은 갖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겠다는 다짐이다.

그의 現實主義的 思想을 여실히 나타내어 본심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또 있다.

<悲歌行>

秦始皇은 丞相 李斯를 처형해  
영달과 명성 얻으려다 화를 입었네  
范先生은 五湖에서 즐길 줄 일찍 알아  
성공해 명성 얻고 스스로 물러났네  
大劔은 적과 싸울 때 필요한 것  
책은 자기 이름 쓸 줄 알면 충분해  
惠施는 魏惠王의 선양 거절하였지만

秦家李斯早追悔  
虛名搬向身之外  
范子何曾愛五湖  
功成名遂身自退  
劔是一夫用  
書能知姓名  
惠施不肯千萬乘

卜式은 낮놓고 기억자 몰라도 제후 되었네  
 젊은 나이에 지방장관이라도 해야지  
 백발이 되도록 헛되이 儒生이 되지 마세

卜式未必窮一經  
 還須黑頭取方伯  
 莫謾白首爲儒生

功名遂하고 난 후 자진 은퇴하는 것이 天道인데 그렇지 못한 사회상을 한탄한 것이다. 越王 句踐이 會稽之治를 설욕하는데 范蠡가 일등공신이었지만, 句踐의 위업을 달성한 후 그 내심을 간파하고서 스스로 물러나 만년을 즐겁게 지내며 天壽를 다한 범려를 인용함으로써 功成身退의 행위를 강조하여 李白의 일관된 현실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말미에서 젊어서 관직에 올라야 한다는 말은 그의 현실 참여에 대한 열정을 말해 주고 있다.

李白은 政治참여에 대한 열정은 대단해, 자기의 濟世利民의 力量을 발휘할 길을 모색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과거에 급제하고 進士가 되어 보수화된 관료주의의 순응주의자는 되려고 하지 않았다. 보편적인 出仕의 길은 科擧에 급제하는 것이었지만 「終南捷徑」의 험난한 코스를 李白은 선택해서 매진했다. 李白의 재능과 주위의 도움으로 玄宗의 도량에 의해서 翰林院의 翰林待詔로 기용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조정의 부름에 그는 영광으로 생각했지만 宮廷詩人에 불과해 그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는 없었다. 李白은 졸지에 黜黨 당했으니 在野의 몸으로 長安 생활은 마감되고 다시 放浪生活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曲學阿世 하지 않고 지조 있는 생활을 했다. 가는 곳마다 일화도 많이 남겼다.

李白이 일찍이 당나귀를 타고 (華山の 남쪽) 華陰縣을 지나는데 현령이 못 가게 하니 李白은 다음과 같이 호통쳤다.

“나는 서쪽 蜀에서 태어났지만 長安에서 살고 있다. 하늘 나라에서 복숭아 몇개를 항상 먹듯이 궁궐에서 살고 있고 달나라에서 계수나무 높은 가지를 꺾듯이 桂冠詩人이다. 일찍이 황제가 손수건으로 식탁과 입술을 깨끗이 닦고 손수저에게 국을 떠 주었고 楊貴妃는 머무를 바쳐 들고 高力士는 신발을 벗겨 주었다. 생각컨데 縣의 우두머리라 해서 天子보다 높을 수 있으며 이 곳이 首都 長安보다 크다는 말인가. 天子도 궁궐 앞을 말 타고 지나도록 쾌히 운허했거늘 華陰縣에서 내가 당나귀 타고 지나가는 것을 승낙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에 현령은 大驚失色 하여 깊이 사죄했다.



李白嘗騎驢過華陰縣，令止之，白供云「予生西蜀，身寄長安。天上碧桃  
 憤澆數顆。月中丹桂曾折高枝。曾使龍巾拭唾。御手調羹，貴妃捧硯，力士脫  
 靴。想知縣莫尊於天子，料此地莫大於皇都。天子殿前尚容吾走馬，華陰縣里  
 不許，我騎驢。」令大驚，謝之。<sup>24)</sup>

李白은 夜郎自대한 地方 관리들을 매도했고 玄宗의 총애를 받는 楊  
 貴妃와 宦官 高力士마저도 자신의 詩才를 인정했고 자신의 방종한 태  
 도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었다고 비유했으니 모두 다 儒家 思想의  
 기본적 표현이라 하겠다.

玄宗의 특별 배려로李白은 '供奉翰林'으로 임명되어 天寶元年(742)  
 가을부터 근 3년 동안 長安에 살면서 생동적인 일화를 많이 남겨 史  
 家에 의해서 '力士脫靴'가 舊, 新 《唐書·李白傳》에 실려져 있다. 또  
 唐代 李肇의 《唐國史補》에도 실려져 있다. 또 唐代를 대표하는李白  
 과 並稱되는 杜甫도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李白은 술 한 말에 백편의 시 짓고, 장안 거리 술집에서 잠자며 "천  
 자가 불러도 배에 오르려 하지 않고, 신하는 그저 酒中の 神仙이라고  
 자칭하네"<sup>25)</sup>李白이 翰林院 생활을 시작할 때 기고만장한 포부는 "나  
 도 이제 집을 떠나 서쪽 長安에 올라 가노라, 내가 어찌 쑥대밭에 그  
 냥 묻힐 사람이라"(余亦辭家西入京, 我輩豈是蓬蒿人. 〈南陵別兒入京〉)  
 로 表出했다. 出仕에 대한 요구가 성취되었지만 每事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그저 宮中詩人에 불과했으니 理想과 현실은 공백이 너무나  
 컸다.

杜甫는李白과 天寶三年(744년) 초 여름에 처음 만났는데,李白은  
 44세였고 杜甫는 33세였다. 이때李白은 長安에서 翰林院 생활을 끝  
 내고 유랑하면서 洛陽에 온 때였는데 이미 수많은 명작을 내놓아 시  
 창작에서 관숙기에 처해 있었다. 杜甫는 과거 준비와 시 창작에서 개  
 화 과정으로 개성적 스타일을 확립하기 시작한 때이다. 人情을 重視하  
 는 中國人들은 위대한 두 시인의 우연한 만남에 대해서 奇瑞로 여기  
 고 있다.

24) 明代·蕭良有 《龍文鞭影·李白乘驢》

25) 杜甫〈飲中八仙歌〉李白一斗詩百篇，長安市上酒家眠“天子呼來不上船，自稱臣是酒中  
 仙”

杜甫는 李白의 日常事를 꿰뚫고 있는 知己之友로 天才성과 豪酒家의 면모를 솔직 담백하게 詩?化 했다. 이러한 사실과 정황으로 미뤄 볼 때 호사가들에 의한 일화 혹은 전설로만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單父東樓秋夜送族弟況之秦>

아득히 長安의 해는 보여도	遙望長安日
長安의 사람은 안 보이네	不見長安人
구천 위의 장안 궁궐	長安宮闕九天上
이곳에서 일찍이 임금의 측근이 되었지	此地曾經爲近臣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나	一朝復一朝
머리 세어도 마음은 변치 않았네	髮白心不改
屈原은 초혜해 강가에 서성 거리고	屈平憔悴江潭
亭伯은 좃겨나 요동 바닷가에서 맴 돌았네	亭伯流離放遼海

그는 玄宗을 戰國末期 楚의 懷王에, 자신을 屈原에 비유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을 崔駟에 비유하여 부패한 지배층 즉 李林甫 같은 奸相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李白령은 玄宗에 대한 一片丹心은 변함이 없음을 내보이고 있다.

玄宗은 황제 즉위 초기에는 姚崇, 宋璟, 韓休, 張九齡 등 賢相을任用하여 開元時期의 기본 방침으로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開元 二十七年(739) 武后時代에 잃었던 西域의 요충지 碎葉도 수복했다. 天寶(740) 初年에는 대장 高仙芝가 西域의 吐蕃과 大食國을 정벌하여 王을 포로로 잡으니 七十二個의 나라가 다 두려워해서 복속하며 唐 王朝는 가장 强盛한 封建帝國이 되었다.<sup>26)</sup> 최고의 정점은 下降하기 마련이니 玄宗이 정무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奸臣들이 활개를 치니 傾國도 시간 문제였다.

<感興八首>其二首

진왕은 헛되이 부를 지었으니	陳王徒作賦
어찌 신녀와 함께 돌아갈 수 있으리	神女豈同歸
호색은 대아를 상하게 하니	好色傷大雅

세상 사람들 비난도 많더라

多爲世所譏

天寶14年(755) 11월에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키자, 李白은 “악의가 다시 태어난다 하여도, 지금의 처지에서는 도망하리라.”<sup>27)</sup>라 하여 도망의 길을 택하게 했다. 그에게 安史의 난은 예견된 사태였으나 현종이 자신을 신임하지 않아 진언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마음으로 알아도 말할 수는 없으니, 차라리 봉래나 영주에 은거하고 싶어라.(心知不得語, 却欲栖蓬瀛)”하며 임박한 국난의 상황에서 황음에 빠진 玄宗을 탓하며 은둔을 생각하였다. 이러한 도피사상은 결코 현실과의 영속적 단절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실 기피라 볼 수 있다. 封建 사회에서도 위대한 皇帝를 보필하는 것은 賢相이며 황음에 눈이 먼 皇帝의 측근에는 쉬파리뜰이 들끓기 마련이다. 즉, 사회가 어지러울 때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극복하려 하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안정된 때를 기다리자는 것으로, 이것 역시 儒敎의 現實觀의 裏面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李白의 시가에는 현실을 직시하는 작품이 적지 않다.

<古風五十九首>其二十四

큰 수레 흙 먼지 날리니  
대 낮에도 온길 어두 캄캄  
세도가들 황금도 많아  
고대광실 구름 뚫고 연이었다  
길에서 만난 닭싸움꾼들 모습  
옷차림과 수레 차양 으리으리 빛나네  
숨소리는 하늘을 꿰뚫을 듯  
행인들 모두 다 위세에 벌벌 떠네  
세상에 귀 씻는 늙은이 없으니  
누라서 요순과 도척을 알리

大車揚飛塵  
亭午暗阡陌  
中貴多黃金  
連雲開甲宅  
路逢鬪鷄者  
冠蓋何輝赫  
鼻息干虹蜺  
行人皆怵惕  
世無洗耳翁  
誰知堯與跖

古代 전설상의 인물 許由 巢父의 초세속적인 사상가의 故事를 예로 들어 현실 세계와 이상세계의 공백을 옮겼다. 현종 후기에는 정치가 부패하고, 상층 계층들은 사치와 유희에 여념이 없었다. 그 일례로 투계 즉 닭싸움이 널리 유행하였는데, 황제로부터 관리와 환관에 이르기

27) 李白<贈江夏韋太守良宰>“樂毅倘再生, 於今亦奔亡.”

까지 모두 그것을 즐겼다. 그래서 뛰어난 투계꾼은 부귀를 누릴 수 있었다. 李白은 이러한 잘못된 풍조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詩經> 國風의 풍간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儒敎의 現實主義的인 思想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4) 李白의 愛民的 苦惱

李白은 自身の 才能에 매우 자부심을 느껴 國家의 前途와 運명에 대해 열렬하고 심후한 애정을 가졌다. 정치상에서 큰 공헌을 한 것은 정치적으로 비교적 開明했고 과거제도 의 시행으로 사회적으로 서민층의 지식분자들로 仕途에 부담 없이 시도할 기회가 많았다. 이러한 객관적 형세에 기인한 것이다. 李白도 이러한 주위 환경에서 雄心과 壯志를 품게 되었다.<sup>28)</sup>

李白은 다방면의 교제로 道敎界의 원로 司馬承禎을 뵈었고 '仙風道骨'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그는 <大鵬遇希有鳥賦>를 지었고 뒷날 <大鵬賦>라 고쳐 쓰게 되었다. 그의 대단한 정치적 포부는 大鵬으로서 자신의 고원하고 비범한 理想 세계를 상징으로 삼았다.

儒家의 政治觀은 德治主義에 의한 民生爲主의 施政이라고 하겠다. 李白의 民主와 自由에 대한 열애와 추구는 대단했다. 그의 재능과 자유의식은 어떠한 규제나 제약을 받으려하지 않았다.

#### <上李翁>

바람이 잦을 때 내려온다 해도  
 들개바람 일으켜 곧장 날때면  
 단숨에 구만리물 곧장 날은 다네  
 날개로 바닷물을 튀길 수 있다오  
 이 몸은 언제나 流俗을 안 따르며  
 큰 소리 친다고 사람들 비웃으나  
 孔子께서도 후배들이 무섭다했으니  
 大丈夫는 나이 적다 깔보는 것 아니라고

大鵬一日同風起  
 搏搖直上九萬里  
 假令風歇時下來  
 猶能簸却滄浪水  
 世人見我恆殊調  
 見余大言皆冷  
 先父猶能畏侯生  
 丈夫未可輕年少

28) 王運熙 <李白研究> 北京, 作家 出版社, 1962年, p.53

唐代의 士人들은 필독서로 李善의 《昭明文選》을 책상에 펴놓을 정도로 유명했는데, 李邕는 李善의 아들이라서 부친에 비견할 학식을 갖쳤고 士人들과도 광범위한 교제로 靑出於藍의 영예를 지녔다. 李白은 千里를 멀다하지 않고 李邕를 찾아 뵙고 그의 포부인 濟蒼生, 安社稷을 피력했다.

李白이 만일 지방이나 長安의 高官들에게 고분고분한 자세로 아부했더라면 一生을 편안하게 安住할 수 있는 터전을 그들로부터 마련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庸俗한 下流 官吏나 詩人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은 大鵬이 잡새로 변하는 것과 같다고 李白은 생각했을 것이다. 李白이 庸才 詩人이 아니고 天才 詩人이라고 칭송받고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하겠다.

백성들을 引導함에 政令으로써 하고 백성의 풍속을 통일함에 형벌로써 한다면 백성들은 法網을 免하기만 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지게 된다.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德으로써 하고 풍속을 통일하기를 禮로써 가지런히 한다면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또한 올바른에 이르게 된다.<sup>29)</sup>

이는 孔子가 政令이나 刑罰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法治主義를 반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다. 그는 또 “도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유하면 마치 北極星이 제자리에 있는데 여러 별들이 그것을 향하여 도는 것과 같다”<sup>30)</sup>고 했다. 도덕이란 황제는 물론이거니와 보좌하는 고관들로 갖추어야 할 훌륭한 德目이고 性能이다.

한편, 孟子(BC372~AD289)는 孔子의 이러한 立場에서 더욱 나아가 德治主義와 民本思想을 결합한 議論을 보여줘 보완하고 있다. 孟子의 核心思想은 仁情思想이고 그의 性善論의 哲學思想은 社會 政治 問題에 표현되어 있다. 그는 사람마다 모두 차마 할 수 없는 마음(不忍之心)이 있는데 이것을 仁心이라고도 한다. 不忍之心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곧 仁政이며 사상적 기초이다.

이러한 仁政 思想은 戰國 時期인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조준성과

29) 《論語·爲政》：“道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道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

30) 《論語·爲政》：“爲政以德，譬如北辰居其所，而衆星共之。”

강렬한 비판성을 다 갖고 있었다. 各國의 통치자는 개인의 정치적인 만족과 생활상의 욕망을 위해서 苛劊誅求를 하는 폭정, 전쟁의 발발과 併呑合併, 잔혹하게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고 도살을 했다. 孟子는 백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으로 民本思想을 표현했고 戰國社會의 기본적인 모순 즉 봉건 지주 계급과 노동 인민의 모순을 폭로해 봉건 통치자의 생활적 탐욕과 정치적 야심을 책망했다. 그는 또 封建社會 초기 노동인민이 전쟁에 대한 반대를 간접적으로 반영했고 자급자족에 대한 생활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표현했다. 역대 진보적 정치가들이 추진한 利民, 愛民의 조치를 취하도록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쳤으니 진보적 사상이라 하였다.<sup>31)</sup>

孔子와 孟子의 “仁”에 대한 견해는 仁愛, 仁孝, 仁義, 仁賢, 仁人, 仁德 등으로 다양한 德目이 포함되어 있다.

어진자는 근심 걱정이 없다.(仁者不憂) 《論語·子罕篇》

仁者에게는 對敵할 사람이 없다.(仁者無敵) 《孟子·梁惠王》上

仁者は 반드시 용감한 실천력이 있고(仁者必有勇…) 《論語·子罕》

仁이란 것은 그의 말을 조심하는 것이다.(仁者,其言也訥) 《論語·顏淵》

仁者は 어려움을 남보다 먼저 치르고 보답은 남보다 뒤에 얻으면 참으로 어질다 할 수 있다.(仁者先難而后獲,可謂仁矣) 《論語·雍也》

좋은 말이나 좋은 낱을 꾸미는 사람은 仁愛로움이 적으니라.(巧言令色,鮮矣仁) 《論語·里仁》

堯舜의 道로써도 백성을 仁愛하는 政治를 행하지 아니하면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없다.

(堯舜之道,不以仁政,不能平治天下.) 《孟子·離婁》上

대저 國君이 仁을 좋아하면 天下에 敵이 없다.(夫國君好仁,天下無敵) 《孟子·離婁》上

31) 王樹森 等編 《中國文學五百題》 沈陽,遼寧人民 出版社, 1988, pp.43~44

孔子는 보편적인 의미와 全人格의인 특수성으로 썼으니 仁에 대한 士人和 君子의 理想과 觀點은 多方面的이다. 儒家의 經典인 《論語》와 《孟子》에서 찾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孔子의 核心사상인 “仁”을 孟子는 부연설명하여 현실세계에서 實제상황에 적용시키려 노력했다.

<門有年馬客行>

. . . . .

큰 운수 이처럼 발발하여도  
푸르른 하늘의 仁德은 멀고 멀어  
人間世上에 合致할 수 없으니  
존속하든 멸망하든 대자연에 맡기리

. . . . .

大運且如且  
蒼穹寧匪仁  
惻愴竟何道  
存亡任大鈞

李白의 寓居에 賓客이 찾아와 장안의 政治 狀況과 時事問題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다. 자신은 부단히 官界에 진출을 도모했지만 여의치 못해 은둔 생활을 하고 있지만 仁政을 베푸는데 보좌할 기회가 없으니 大自然의 섭리에 放任 시킬 수 뿐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다. 李白은 國政을 논하고 정책을 실시하는 능력에 자신은 있지만 布衣에 불과했다. 그러나 李白은 그런것에 상관없이 政務에 관심을 기울였으니, “아직 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지위에 따르는 政事에 의논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한다.”(不在其位, 不謀其政, 《論語·憲問》), “군자가 생각한 바를 자기의 신분 밖은 벗어나지 않는다”(君子思不出其位, 《論語·憲問》)는 유교의 교리에 상반되고 있다. 이처럼 盲從하지 않고 유가사상의 비효율성에 대해 비난하여 백성이 제반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진력하였다.

孔子가 제창한 仁이라는 말은 仁愛, 仁者, 寬仁, 人情 등을 포괄하고 있지만 그러한 일반적 의미보다는 英雄과 大丈夫가 지녀야 할 全人格의인 우수성, 또는 우월성을 뜻하는 효능적인 것이라 하겠다.

孟子의 民本思想의 核의 하나인 一種의 貴民論이라 할 수 있는 “民爲貴”의 民本宣言은 《孟子·盡心》하에 보인다. 民과 社稷과 君主의 세 가지 중에서 民이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한 것이다.<sup>32)</sup> 民心이 정치

32) 《孟子·盡心》下：“民爲貴，社稷次之，君爲輕。”

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孟子에게 있어서는 貴民論과 仁政論이 一體가 되어 있는 가운데 莫重한 것이었다. 傳統社會의 儒敎의 理念으로 볼 때, 治國이란 절대적인 요소였으며 治者와 被治者의 倫理는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儒敎의 理念에 충실한 李白에게 忠君과 愛民의 의식은 시련의 연속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李白의 詩에는 이러한 傳統儒家의 貴民論과 仁政論이 자주 등장한다.

〈丁督護歌〉

雲陽에서 운하따라 올라가자면	雲陽上征去
兩 언덕엔 많은 장사치로 떠들썩 하네	兩岸饒商賈
뒷나라 물소는 달을 보고 헐떡이고 <sup>33)</sup>	吳牛喘月時
사람들 배를 끌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拖船一何苦
물은 더러워 마실 수 없고	水濁不可飲
물병 속엔 진흙 투성이	壺漿半成土
督護가 노래 부르지만 독촉하니	一唱督護歌
마음은 부숩히고 눈물은 비 오듯	心摧淚如雨
수만의 일꾼 반석을 깎아 내지만	萬人繁鑿石
강가에 옮겨 놓을 방법은 없네	無由達江滸
자네 보게, 수많은 돌 무더기 앞에서	君看石芒碭
눈물 닦으며 천년 슬픔에 잠겨 있는 듯	掩淚悲千古

李白은 樂府題名으로 무고한 백성들이 강제로 외지에서 徵集되어 運搬船을 끌고, 운하의 통행과 土木工事に 고생하는 일꾼들의 실상을 南方의 물소에 비유해 그 고초를 적나라하게 폭로 비판했다. 李白은 백성을 귀히 여기는 발상을 基底에 두고 무더위에 혹사 당하는 배물이꾼과 착암공사에 동원된 일꾼에 한없는 동정심을 나타낸 시이다.

그가 '賜金還山'을 당한 후 오래지 않아 지은 〈魯中送二從弟赴學之西京〉의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魯中送二從弟赴學之西京〉

노 땅의 나그네 서쪽 향해 웃으니	魯客向西笑
--------------------	-------

33) 《太平御覽》 卷四引 《風俗通》：“吳牛望見月則喘，使之若于日，見月怖喘矣。”



궁궐문은 꿈 속에도 선하고  
 쫓겨난 신하 머리는 서리 맞은 듯하고  
 날마다 명광궁을 그리워 한다네  
 . . . . .  
 님을 千里 먼 길 해뜨는 곳 보내노니  
 좋은 시절 오면 만날 기약이나 합시다

君門若夢中  
 霜凋逐臣髮  
 日憶明光宮  
 . . . . .  
 送君日千里  
 良會何由同

李白은 長安에서 千里나 떨어진 魯 지역의 나그네로 서쪽 長安의 明光宮을 그리워 하고 있다. 君主에 대한 一片丹心은 변함이 없음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明堂賦>

. . . . .  
 군주께서 명철한 조서를 내리고  
 옛 규범을 잊지 마십시오  
 궁핍한 백성 널리 구제하고  
 오창의 곡식을 나눠주십시오  
 옥과 보물은 깨뜨리고 물에 버릴 것이며  
 장벽을 허물고 궁궐담을 낮게 하십시오  
 산과 내의 간격을 모두 없애  
 백성들이 마주보며 다닐 수 있도록 하십시오  
 친히 임금께서 몸소 쟁기 들어 밭 갈고  
 왕후께서 친히 뽕을 따고 가꾸십시오  
 중요치 않은 것은 버리고 근본으로 되돌아가  
 사람마다 화목하고 편안한 시절이 되게 하십시오  
 . . . . .

. . . . .  
 下明詔  
 班舊章  
 振窮乏  
 散敖倉  
 毀玉沈珠  
 卑宮頽墻  
 使山澤無間  
 往來相望  
 帝躬乎天田  
 后親于郊桑  
 棄末返本  
 人和時康  
 . . . . .

古代 帝王이 정치와 종교 및 교육을 명확히 선포하는 곳이 明堂인데 朝會, 祭祀, 賞賜, 養老, 教學, 선비의 선발 등을 이곳에서 거행했다.<sup>34)</sup>

李白은 英明하신 皇帝께서 初心의 자세로 政務에 힘써 주시고 옛 역사와 규범을 명심해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皇帝와 皇后와 妃嬪이 친히 농부들과 같이 농사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孝道를 天下에 실천하는 본보기라고 간주했다.

34) 安旗 《李白全集編年注釋》 成都, 巴蜀書社, 1990, p.1788

<題瓜州新河餞族叔舍人賁>

제공이 만든 새로운 운하를	齊公鑿新河
만고를 흘러도 그치지 않네	萬古流不絕
풍년이 들도록 백성을 이롭게 하였으니	豐功利生民
천지와 함께 영원하리라	天地同朽滅
두다리 서로 쌍각에 대하니	兩橋對雙閣
향나는 수목이 행렬을 이뤘다.	芳樹有行列
.....	.....

瓜州운하의 개통으로 백성들의 교통은 편리해졌고 그 이로움은 국에 달했다. 潤州 刺史 齊翰公에 대한 공적은 天地간에 不朽할 것이다. 두 개의 다리는 古殿에 對稱으로 存在하고 兩岸엔 향기나는 수목이 행렬을 이뤄 운치를 더욱 질게 했다. 모든 백성을 위하는 土木工程는 대업적으로 길이 보전될 것이라고 했다.

### Ⅲ. 結 論

李白은 古代詩人 가운데 가장 정기 발달하고 자유 의식이 강했다. 그의 이러한 경향은 소위 '蜀中時期(701~726) 즉 26세에 出蜀하기 이전에 蜀에서 靑少年 時節의 학습에 전념했을 때 잉태되어진 것이다. 그는 학습 범위가 전통 유가 사상에만 몰두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그는 "5세 때 六甲을 배워 익혔고 10세 때는 百家를 읽었고, 軒轅(古帝王) 이래의 것을 아주 많이 들어 익히고 알았다."<sup>35)</sup>고 언급한 바를 보면 전통 사상인 儒學 章句의 속박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眼光과 個性의 해방을 體得했다고 하겠다. 또한 峨眉山, 大匡山 등에서 학업에 몰두했을 뿐만 아니라 道士나 隱士를 찾아다니며 배우고 수련했다. 李白은 蜀(四川省)의 名勝古蹟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見聞을 넓혔고 修學과 作詩를 했다. 益州에서 그는 司馬相如의 撫琴臺, 揚雄(子雲)의 古宅(草玄堂)을 찾아 다녔고 <訪戴天山道士不遇>, <登錦城散花>, <白頭吟>等 名篇을 썼다.

35) 李白 <上安州襄長史書>: "五歲誦六甲, 十歲觀百家, 軒轅以來, 頗得聞矣." <<新唐書>> 本傳: "十歲通詩書"

蜀의 雄大하고 壯麗한 山河는 李白에게 壯闊한 胸襟, 豪邁한 性格, 大自然을 熱愛하는 感情을 培養시켰다. 그가 心身修練에 刻苦勉勵한 결과와 習作的인 작품에 대해서 극구 칭찬했다. 사람들은 李白이 談論할 때 言論이 아름답고 그 말이 道理가 정연하여 春花에 비교해 말했으니 成語化 되어 “梨花之論”<sup>36)</sup>으로 學問과 人格이 特出함을 찬양했다. 이러한 일련의 修道와 經歷은 李白의 儒家 위주의 思想과 品格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李白의 《長短經》의 저자 趙蕤에게서 思想的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社會生活의 지표로 삼기도 했다. 趙蕤가 당시 士大夫의 出仕에 가장 첨경인 科擧에 응시했으나 數次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은둔 생활을 할 때였다. 李白과 그는 토론과 학습을 통해 생활 경험을 전수했었다. 李白은 그에 대해 깊은 감정을 간직해 蜀 지방의 인물 중 유일하게 詩題에 姓名을 밝혀 〈淮南臥病書懷，寄蜀中趙徵君蕤〉에서 “功業은 이룰 길이 없고 세월만 바빠 지나갑니다. (功業莫從就，歲光屢奔迫). 도성의 문은 아득한 하늘 끝, 고향 가는 길은 산들이 가로막고 있네. 아침엔 司馬相如의 臺를 그리고 밤엔 揚雄의 子雲宅만을 꿈꿉니다. (國門遙天外，鄉路遠山隔。朝憶相如臺，夜夢子雲宅.)”라고 읊어 進路가 如意치 않음을 내비쳤다.

李白은 揚雄(BC53~AD18年)이 西漢末 저명한 思想家, 文學家, 史學家로 추앙 받는 원인을 재삼 음미했다. 揚雄은 미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부귀와 名利에는 신경쓰지 않았는데, 당시의 지식인은 부귀와 명리의 수단으로 經書를 읽고 五經博士와 그의 제자들이 되고자 혈안이었다. 揚雄이 入仕時는 漢代 劉氏 王朝과 王氏 外戚集團의 투쟁은 격화 일로였다. 그가 이러한 와중에서 劉氏 王朝를 옹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일생을 저술 활동으로 보냈다.<sup>37)</sup> 그의 賦가 思想性이 매우 강한 것에 李白이 많은 감화를 받은 것 같다.

李白의 出蜀도 儒家 思想의 바탕에서 학습하고 연마한 百家 思想을 政治面에서 孔子의 民本 政治 理念을 구현하여 君主의 측근 내지 신하가 되어 開明化와 民主化의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는 出蜀해 〈上

36) 五代 王仁裕 《開元·天寶遺事》：“李白有天才俊逸之譽，每與人談論，皆成句讀，如春葩麗藻，榮于齒牙之下，時人號曰李白梨花之論。”

37) 賈順先，戴大祿 《四川思想家》 中國 成都 巴蜀書社，1987年，p.40~42

安州李長史書), 〈上安州裴長史書〉 등을 써서 地方 고관들에게 政治의 出路를 모색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李白의 詩는 웅위롭고 기이한 豪放性, 풍부한 想像, 자연스럽고 유창한 言語, 音律의 多變하니, 詩仙이다. 이러한 唐代의 代表的 詩人의 思想을 一刀兩斷식으로 現實主義 시인은 아니고 浪漫主義 시인으로만 여기기에는 무리한 판단이라 하겠다.

李白의 政治적 思想을 펼쳐 볼 호기가 없었으니 자연히 功名思想도 사그라졌다. “滴仙人” 李白의 求仙學道는 唐代에 道教를 숭상하여 皇帝의 優遇를 받았기에 出仕의 한 方便으로 삼았고 翰林院에도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李白이 진실로 갈망했던 것은 儒家思想으로 倫理, 民本化의 선봉장이 되어 濟世安民하려 했고 그런 後에는 武陵桃源 式의 理想 國家를 만드는데 참모 역할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封建社會에서 李白의 理想은 높고 現實은 意志데로 순조롭지 못했으니 위대한 시인으로 길이 역사에 남기고자 作詩에 몰두했다. 李白은 中國의 대표적, 진보적 現實主義 시인이며 浪漫主義의 詩人으로 오래도록 기록되어질 것이다.